

darling에서 baby로, 재즈에서 로큰롤로

「사료비판과 논저강독」과 「현대인의 사랑과 문학」 강의페어링

사학과 4학년 201421661 차재현, 이진희 교수님 지도

1940년부터 1969년까지 빌보드차트 연간 히트곡의 가사를 사료로 삼아 빅데이터로 분석
현대인의 사랑이 대중음악 안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해보는 연구

당대 재즈의 위상과 대중음악의 대전환



대공황 이전까지
스윙재즈는 온 뉴욕을 뒤흔드는
대중음악으로서 큰 인기
-> 재즈의 전성기



대공황 시기 레코드 판매량 30분의
1까지 하락
뉴욕 나이트클럽들 연쇄 폐점
소수 스윙재즈 밴드만이 생존
-> 음악시장의 대 침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대규모 소비문화 등장
-> 기존 재즈 쇠락, 로큰롤 인기

연구방법론

* 대전환의 기점 선정 : 에릭 홀스봄의 1955년 전후 대전환론,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 첫 번째 표본 선정

1. 1940년부터 1969년까지 빌보드차트 연간 히트곡 목록에 등재된 음악들의 가사 추출
2. 1955년 전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top 50 선정
3. Top 50개의 단어들 중 비개념어를 소거
4. 1955년 전후로 75% 이상의 증감을 보인 단어 선정
->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baby, home, good, cry, girl 5개

* 두 번째 표본 선정

1. top 50개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어 선정
2. 75% 이상의 증감을 보인 개념어 선정
3. top50위에 들지 못한 개념어를 중에서도 개념어의 절대량이 많은 순으로 내려가며 선정
->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world, people, work, money, feel, honey, men, roll, rock twist 10개

* 연구 방법

1. 1940년부터 1969년까지 선정된 위 15개 가사들을 통계로 정리
2. 각각 개념어들을 클러스터로 (1) 사랑 클러스터(baby, girl, honey, men), (2) 음악 클러스터(rock, roll, twist), (3) 감정 클러스터(cry, feel, good), (4) 삶 클러스터(home, money, people, work, world) 제시 (위 그래프)
3. 표본으로 정리한 개념어들을 Ngram 뷰어에 넣은 뒤 당대인들의 언어습관과 비교 분석(아래 그래프)
4. 매해 top3 곡들의 가사를 분석하여 해가 지날 수록 가사가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보이는지 조사(아래 표)

가사가 말해주는 대전환

첫 번째, 1945년이나 1950년이나 1960년도 아니고, 실제로 에릭 홀스봄이 제시했던 55년 즈음을 기점으로 음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사변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당대인이 향유하던 일반 언어사용습관과 음악의 언어사용습관이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항목에서 위 열에 정리한 그래프는 클러스터로 묶어 제시한 가사들이고, 아래 열에 정리한 그래프는 Ngram에서 보여주는 당대인의 일반 언어사용습관이다. Ngram은 구글에서 전자책들을 빅데이터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를 추출해주는 당대인들의 일반 언어사용습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런데 사실 가사의 사용빈도수 변화와 당대인의 일반 언어사용습관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 언어사용습관과 음악의 언어사용습관은 구분되는 영역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 변화들의 핵심은 불특정다수의 가사들의 사용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Baby girl, twist 등의 어휘는 분명 1955년 이전에도 일반인들이 향유하던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55년 이후에 갑자기 사용빈도수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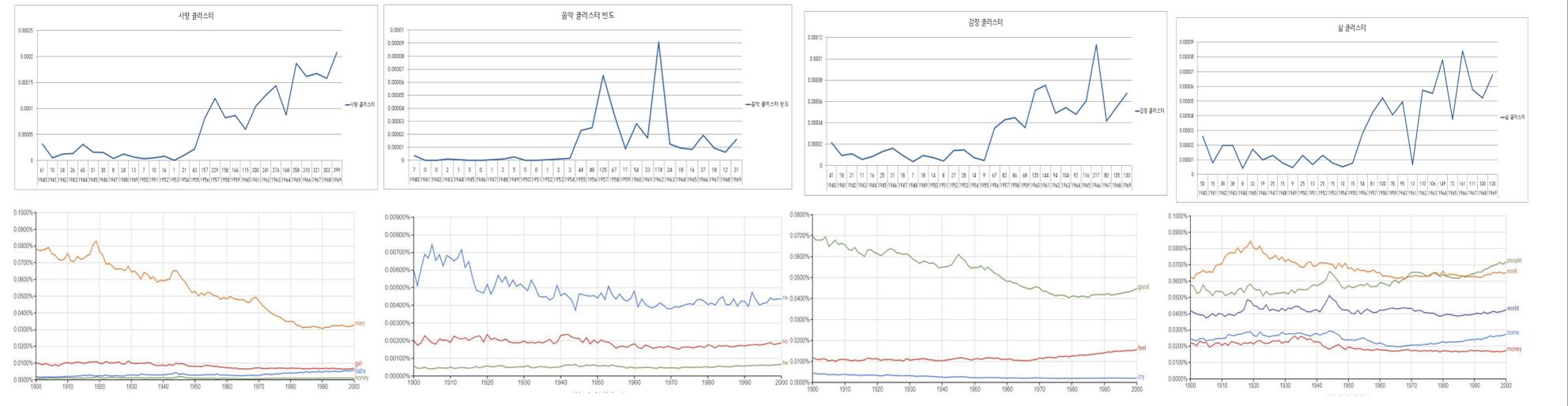
네 번째, 또한 흥미로운 것은 55년 전후로 사용빈도수가 75%이상 감소한 개념어는 어째서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즉 55년 전후로 사용빈도수가 75%이상 증가한 개념어만 등장했을 뿐, 그만큼 감소한 개념어는 찾지 못했다. 아마 이는 55년 이후 음악, 주로 로큰롤이 55년 이전 음악보다 불특정다수의 가사들을 특하게 애용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면서 발현된 현상인 듯 하다.

가설 설정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아마 55년 이전 주류 대중음악이었던 재즈는 로큰롤보다 가사가 서사적이고,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을 것이고, 55년 이후 주류 대중음악이었던 로큰롤은 가사가 덜 서사적이고 매우 직관적으로 다아고는 음악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사의 사용빈도수가 늘어났을 것이다.

Frank Sinatra의 <Fly me to the moon>과 Beatles의 <Let it be>을 비교해보자
Duke elington의 <Take the A train>과 Elvis presley의 <jailhouse rock>를 비교해보자

빅데이터로 분석한 가사 그래프



가설설정 이후 후속연구

위 그래프를 분석한 뒤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실제로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보다 특정 가사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

1. 1940년부터 1969년까지 매해 Top3 곡들의 가사를 추출
2. Top3 곡들의 가장 많이 사용된 가사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절대량 순위로 분류
3. 55년 이전과 55년 이후 실제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가를 비교분석
4. 55년 이전 곡들과 55년 이후 Top3 곡들의 가사 수는 비슷했다

분석 결과

놀랍게도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보다 실제로 특정 가사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1위, 2위 단어 수만 봐도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보다 일정한 이상 꾸준히 증가했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이가 3위부터 5위까지의 수를 비교하면 55년 이후가 이전보다 단어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로서 55년 이후 곡이 이전 곡들보다 특정 단어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며, 나이가 가사들의 문장구조도 한층 단순해졌다는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결론

당대인의 음악소비습관 변화

2. 당대인의 음악소비습관 변화
(1) 대도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화이트칼라 일자리, 엄청난 소비력을 가진, 또한 쉴 새 없이 바쁜 중산층의 증가
-> 이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바쁜 틈틈히 들을 수 있는 직관적이며 덜 서사적인 음악이 인기
- (2) 열악했던 교육제도, 열악한 교육을 받아온 이들이 중산층에 대거 편입
->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가사와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는 노래들이 인기
- (3) 새로 발흥한 방대한 중산층 계급의 유대감
새로이 발흥한 대규모 중산층 계층을 묶어줄 수 있는 유행의 발생
-> (1)과 (2)의 배경을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향유하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로큰롤이 조영

한계

첫 번째, 1940년부터 1955년까지의 표본 곡의 수가 1956년부터 1969년까지의 표본 곡의 수보다 적다. 두 번째, 리듬이나 선율은 제외하고 가사에만 한정시켜 연구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음악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각각 가사들이 사용된 맥락을 무시했을 수 있다. 네 번째, 우연히도 사용빈도가 75%이상 증가한 개념어만을 조사하게 되어 표본선정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섯 번째, 특정 노래에서 어느 가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틀즈의 "hey jude"의 경우, 그 한곡에서만 Jude를 24번 사용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가사는 대중음악가사 변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클러스터화 과정에서 크기가 큰 표본이 작은 표본들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작은 표본들의 위상이 내려갈 수 있다.

의의

첫 번째, 기존 역사가들의 대전환 연구에 가사의 영향력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당대인의 음악소비문화 변화와 가사사용빈도의 변화 비교 대전환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 연구를 통해 가사의 사용 동향으로도 음악사를 진지하게 연구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김지영,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 60년대 미국사회와 록 음악>, 문예마당, 1996
- * 개리 기딘스, <재즈: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황덕호 역, 까치글방, 2012
- * 마크. C. 그리들리, <재즈종론>, 심상범 역, 심호출판사, 1994
- * 송원길, <영혼의 휴식, 미국 남부 음악여행 : 블루스, 재즈, 컨트리음악, 로큰롤 등 대중음악의 발자취>, 박목, 2017
- * 아르노 메를랭, <재즈, 원초적 열망의 서사시>, 장동현 역, 시공사, 1996
- * 에릭 홀스봄,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황덕호 역, 포노, 2014
- * 퍼스 사이먼, <스트로우 윌 등,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장호연 역,
- * 피츠 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영하 역, 문학동네, 2013
- * 엘런 브링클리, <이제는 그대로의 미국사>, 황혜성 역, 휴머니스트, 2016